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장효근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 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 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 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 123호 2009년 2월

봄을 기다리는 2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12~13)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INDEX

2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 리더십
3 이 세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섬김의 리더십
6 땅끝까지 전하라(버니비교회)
12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침례독서문화원



9 우리집에 있는산 종합편 II



11 벤 허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리더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생활뿐만 아니라 사역에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는 리더십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정계 경제계뿐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대의 지도자가 물러나고 젊은 지도자 세대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어찌면 이러한 리더십의 교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리더십의 세대가 교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리더십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더십의 부재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우리세대는 리더의 공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것은 리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하는 말일 것이다. 교회의 리더는 많지만 참다운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없다면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리더십의 발휘는 공동체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오늘날 이런 리더십의 부재가 교단뿐만 아니라 개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이 시대는 심각한 리더십의 기근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리더십을 답습하며 고착되어 변화의 요구를 거부하는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자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리게 할뿐이다. 저항할 수 없는 변화와 정보의 흐름이 우리를 삼켜버릴 때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목적과 이유도 없이 과거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자유와 방임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단순한 능력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모델이 필요하다. 어찌면 급변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아주 진부해 보일지 모르지만 기본(본질)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최상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하나는 앞장선다는 것이다.** 지도자는 생각과 계획을 먼저 해야 한다. **둘째로 지도자는 살핀 내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자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과정에 리더십이 요청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서 한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십이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위 성공한 리더십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정체감을 가진 지도자셨다. 정체감이란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다. 이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리더십은 분명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아셨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는 확신에서 고요함을 느끼셨다.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는 감정에 휩싸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감에 사로잡혀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다.

섬김의 리더십

예수께서는 리더십이 치러야 할 대가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며 섬기는 자로 사셨다. 존 가드너는 리더십의 힘을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한다. 오늘날 이런 힘을 다양한 원천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찾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직분을 지위와 같이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위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위 말고도 돈을 쓰면 영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모택동 서기장은 힘은 총부리에서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보여 지는 능력도 힘이고, 정보와 지식도 힘이며, 개인적인 정력도 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힘의 기준을 뒤집어 놓으셨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정사들을 무장 해제하신 최고의 사건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종의 위대함을 보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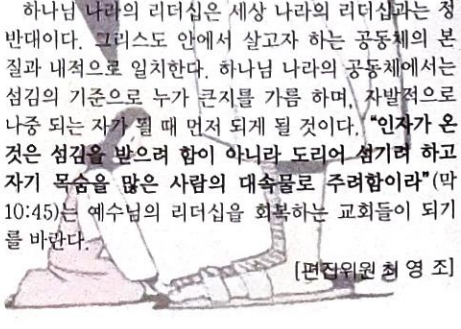
예수께서는 종의 역할을 맡으심으로 힘의 기준을 바로 잡으셨다. 예수께 권력의 2인자, 3인자 자리를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이들을 시기하며 분개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10:44)고 찬물을 끼얹었다. 예수님은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며, 거기에는 고난과 종 되는 일이 따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께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종이 되신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아셨다. 오히려 그가 자신을 드린 것은 그처럼 강한 자기 모습에서 나왔던 것이다.

한국 교회는 성경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요즘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정계나 교계의 실패한 지도자들의 모습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지도력이 붕괴되는 현상이다. 어떤 단체에서는 아예 지도자를 없애고 평등주의적 이념의 영향을 받아 공동의사결정을 추구하다가 공동체의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좋은 지도자는 모든 해답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독재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방향과 분위기를 정하고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하는 지도력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분열될 것이다.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세상 나라의 리더십과는 정반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공동체의 본질과 내적으로 일치한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섬김의 기준으로 누가 큰지를 가름 하며, 차발적으로 나중 되는 자가 될 때 먼저 되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막10:45)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위원 최 영 조]



제2회 춘천기독청년포럼 청년연합겨울수련회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춘천지역 교회에 속한 대학, 청년부의 연합체 〈춘천기독청년포럼〉에서는 2009년 청년연합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주강사는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리하게 우리 시대의 기독청년상을 제시해 온 최은상 목사(전 성서한국 사무국장)이며, 전체특강 강사로는 탁월한 제자훈련가 노재석 목사(전주서부중앙교회)이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원하는 모든 교회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 ▶ 일 시: 2009년 2월12일(목) ~ 14일(토) / 2박3일
- ▶ 장 소: 가평 승동기도원
- ▶ 주 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라!
- ▶ 준비물: 회비(5만원), 성경, 필기구, 세면도구
- ▶ 문 의: 이병철목사(010-6254-3162), 엄기홍목사(011-366-7845)
  이순복전도사(010-5790-0191)

▶ 프로그램

	2/12(목)	2/13(금)	2/14(토)오전
오전	• 여는예배: 엄기홍목사	경건의 시간	
	• 기 도 회: 이병철목사	아침식사	
	• Ice Break: 이상수목사	선택강의	GBS ③
	• 닫는예배: 권기찬목사	GBS ②	닫는예배
오후	오후2시까지 등록	점심식사	
	여는예배 / Ice Break	전체주제특강: 십자가의 도 (노재석목사)	• 선택강의 • ① 경건생활(권기찬목사) ② 이성교제(사공은혜간사) ③ 이단극복(이순복전도사) ④ 중보기도(김준원간사)
	GBS ①	조별발표회	
저녁	성경강해 I · (최은상목사) · 성경강해 II		
	기도회 ①	기도회 ②	
	조별 기도회	교회별 모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 세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섬김의 리더십

이번 시간에는 춘천중앙성결교회 윤철중 원로목사와의 인터뷰입니다

윤철중 목사는 평생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오신 분이다. 1976년 부임 이후, 춘천중앙교회를 목양의 열정으로 부흥하는 교회, 교회연합을 통한 춘천성시화에 쓰임 받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오셨다. 47년 동안 시종일관 충성하는 목회자로서 겸손한 인격과 청빈의 삶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춘천지역 교계의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은 영적 지도자로서 끝까지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다. 목양의 열정으로 걸어온 그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이 시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성경적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

은퇴이후 원로목사로서의 삶과 후배목회자들에게 한마디 고견을 들려주신다면.

무엇보다도 설교를 요청해 오는 교회를 순회하며 말씀 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이후 많은 시간을 독서하는 일에 소비하고 있어요. 이유는 정신적으로 늙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재작년에는 1년 동안 108권의 책을 읽었고, 작년(2008년)에는 112권을 읽었습니다. 주로 신간을 사서 읽고 있는데, 책 구입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독서가 여간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가 줄을 치며 읽던 책을 모두 선물로 나눠주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한 성경 읽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3달에 일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년에도 신약을 5독, 구약을 4독했습니다. 은퇴이후 47년 목회생활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다시 한 번 목회할 기회를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후배목회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지극히 평범한 말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면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계의 모습을 보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도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교회이든, 교단이든 간에 복음이 전파될 때 바르게 전파되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도, 선교사도, 다른 많은 주의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몇 번씩이나 사랑을 다짐받은 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교단 일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연합 사업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저는 화합(和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和)의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유컨대 십자가 위에 사람인(人)은 모세를 의미하며, 십자가아래 사람인(人)은 아론과 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또한 아론과 훌의 협력은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일은 바로 아말렉으로부터 자신과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이지 특정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계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세워야합니다. 자기과시, 자기선전은 연합운동에 큰 장애물입니다.**

중앙성결교회를 섬기시는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누군가 한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임정순 집사님이란 분이 출석하셨는데, 이승만대통령시절 경무대에서 식사를 담당하셨던 분이셨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춘천 따님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심방요청을 하는데 심방사유도 말씀안하시고, 무조건 목사님 혼자만 오시라는 겁니다. 신경은 온통 건축하는데 있지요, 토요일이라 설교준비로 마음은 분주한데 특별한 이유도 말씀안하시고 심방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배 후에 할머님이 베개를 뜯는 거에요. 베개 속에 신문지로 둘둘 말려있는 큰 뭉치가 나오는데 보니까 돈입니다. 장례비용으로 모아둔 비용이라면서 건축비로 부족하나마 헌금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음날 예배 후 광고를 하였는데 온 교인이 감동을 받고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건축헌금에 불이 붙어 은혜롭게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귀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영적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지도자의 위기관리능력이라고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과 성도님들을 만나 은혜가운데 목회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단 선교위원장과 총회장으로 섬길 때 총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전액 선교지 교회건축기금으로 헌금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활동을 위한 별도 헌금으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지금도 깊이 감사합니다. 목회자에게는 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한번 제가 교회건축헌금을 은행에 적립하는 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당회를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10일 동안 금식과 철야기도를 하겠다. 금식과 철야를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기도를 끝까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토요일 저녁에는 너무 힘들어서 문득 "내일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를 오해했던 분이 예배 후에 찾아오셔서 잘못했으니 금식을 중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기뻐서 금식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해결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도를 중단시키려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금식을 감당하기로 마음먹고 금식을 계속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3:30분쯤 금식하며 철야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떤 모자(母子)가 커다란 식칼을 들고 양쪽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영적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시간정도 심하게 몸부림치며 싸우다가 결국은 칼을 빼앗아 양쪽에 있는 모자(母子)를 다 죽였어요. 그때 관리집사님이 새벽종 차임벨을 누르려고 문을 열고 새벽기도실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눈과 코와 입으로 새바람과 새 기운이 들어오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금식이 전혀 힘들지 않았을 뿐더러 목양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크게 깨닫은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예배당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사단 마귀의 역사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큰 예배당을 지었다! 총회장을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일을 이루기까지 힘든 영적싸움을 이기려고 몸부림친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지도자의 위기관리능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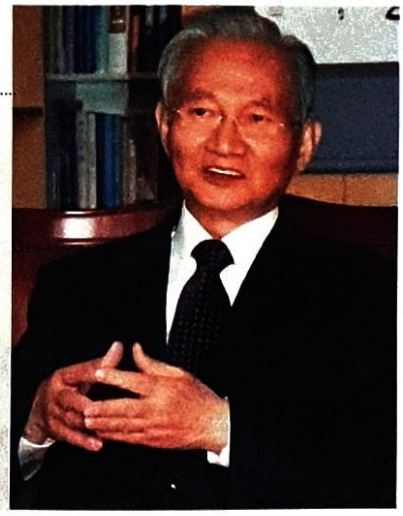
춘천지역의 목회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세요.

목회 47년 생활을 뒤돌아보니 다 부족하고 후회스러운 일들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삼 깨닫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며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기과시는 매우 위험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고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님과 춘천지역 목회자들,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취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윤철중 목사 약력 ▶

- 충남공주 출생 (1933. 5. 22)
-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 졸업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역임
- 모스코바 성결신대 이사장 및 학장 역임
- 춘천경찰서 경목 역임
- 춘천기독교 교역자회장 및 연합회장 역임
- 춘천성시화 본부장 역임
- CBS 춘천방송 건립위원회 대표회장 역임
- 월드비전 춘천지회장 역임



거룩을 꿈꾸는 도시, 희망 춘천!

- 2009, 성시화를 위한 도전들 -




성시아카데미


성시비전포럼



성시신문 창간10주년 감사예배



청소년비전캠프


청소년비전캠프


기독영화상영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2008년 한해도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성시화운동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할 운동이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

지난 한해 성시본부에서는 성시지도자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전략적 중보기도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꼭 필요한 기도전략가이드북 제작, 그리고 성시 3,000후원자를 발굴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2009년 새해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사역을 기반으로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성시지도자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개발과 협력 :

성시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성시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성시지도자는 지속적인 성시아카데미를 통해 양성할 예정이며, 성시아카데미는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별 주제에 눈높이를 조정한 맞춤형 단기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리더십교육이 필요한 단체와 연결하여 위탁교육도 실행할 예정이다.

2009년도 개설 예정인 성시아카데미는 다음과 같다.

- ✻ 4월중 3주 과정, "향후 춘천지역의 발전방향"
- ✻ 5월중 3주 과정, "행복한 가정과 성경적 경제관"
- ✻ 6월중 성시특강, "기독교민족주의와 리더십"
- ✻ 10월중 4주 과정, "일상생활속의 영성, 직장생활 가이드"
- ✻ 11월중 4주 과정, "교육, 문화 그리고 건강"

2. 실천 가능한 섬김전략개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터전 및 지역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성시화운동은 춘천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면서도 개 교회 부흥과 성장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 이에 성시화운동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개 교회 성장에도 유익을 주는 섬김전략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진행하여 지역교회 성장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검증된 "섬기는 한국교회운동(SSK,겨자씨운동)"을 춘천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회에 소개할 계획이다.

3. 성시목회를 위한 연구:

성시화운동은 기독교적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성시화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제시하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이론과 원리를 기초로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운동의 배후에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왕 같은 제사장들인 평신도들이 함께 이루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 모든 일에 든든한 버팀목과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시화운동의 차원에서 지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비전제시가 필수적이다. 춘천성시본부는 성시목회연구소(소장:명성훈목사)와 협력하여 성시목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춘천지역 환경에 적합한 목회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4. 영역별 은사 그룹의 활성화 :

춘천성시화운동은 영역별 선교운동이고, 복음화운동이다. 춘천에 속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복지, 오락 등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춘천성시화는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역별, 직업별, 연령별, 관심별, 은사별 소그룹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춘천성시본부는 이러한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진행되며,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지원, 후원할 계획이다.



시무국 예배
춘천영적지도

5. 변화를 위한 전략적 기도운동 :

성시화를 위해 끊임없는 중보기도는 단연 중요하다. 성시본부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시화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춘천의 영적환경과 기도제목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춘천의 영역별 변화, 지역적 변화 등을 위한 차별화된 기도전략을 개발하고 기도운동을 실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도소그룹들과 협력하여 테마가 있는 성시연합기도회를 매월 1회 가질 계획이며, 지난해 제작 · 발행한 춘천기도가이드북과 영적지도를 참조하여 땅밟기 중보기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협력예정:예수전도단,청년포럼,예스컴,유스아트홀,홀리클럽,장로연합회,춘천에 있는 모든 사회선교단체협력가능).

6. 학문적 성시도시 모델추구 :

춘천은 성시화의 고장으로써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고속도로 및 전철복선화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진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이 취약하지만 친생태적, 지식기반산업 등을 유치하여 인적인프라를 풍성하게 갖추어 나가면 21세기형 친환경 첨단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성시본부는 성시화의 고장으로써 춘천을 학문적 성시도시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비전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성시화운동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까지 수출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21세기 기독교선교운동으로 세계교회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춘천성시본부는 타도시의 성시화운동과 차별화 되도록 성시화운동의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연구 · 논의하여 성시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며,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학문적 성시도시 모델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7. 대외 및 국제협력기능의 강화 :

현재 성시화운동은 국내와 해외의 여러 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시화운동은 특정인, 특정교회, 특정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운동이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성시화운동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국내(부산,포항,대구,대전,인천 등의 여러 지역본부와 국내본부)와 해외(세계변혁운동, 4월 미국 휴스턴 변혁대회 참가 예정)에서 영역별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동일한 선교원리를 추구하는 다양한 그룹들과 친밀하고도 긴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 적극 협력함으로 춘천성시화를 위한 영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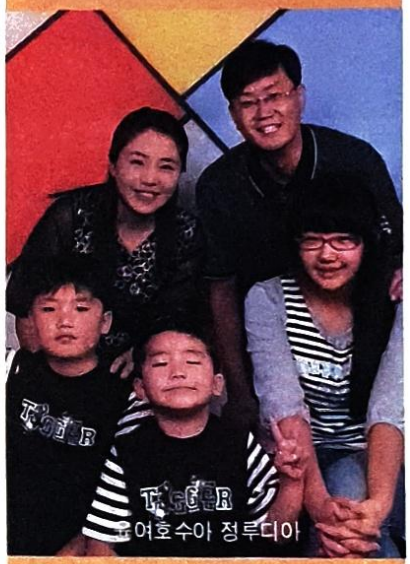
이외에 올 한해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 중 하나는 이미 오래전에 성시목(聖市木)으로 지정된 산딸나무 심기이다. 산딸나무는 십자모양의 하얀 꽃을 많이 피우는 나무로서 '십자가나무'로 많이 알려져 있다.

성시화운동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으로 전개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 많은 관심과 기도의 풍성한 후원, 아낌없는 물질적인 지원이 있을 때 춘천성시화는 앞당겨질 것이다. 적극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시무총장 정재호 목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필리핀에서 인사드립니다.

필리핀 클락에서 사역중인 윤종대, 정연희 선교사 기도편지입니다



하얀 눈밭의 귀성길이라서 예년보다 더 오랜 시간 고향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찾아가야 할 고향이고, 따뜻함으로 맞이해야 할 고향 사람들이지요. 경제의 어려움은 귀성의 발걸음조차 무겁게 만들었다는 세해 벽두의 소식은 소망이 더욱 필요함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더욱 우리의 힘이요, 위로요, 능력입니다.

필리핀 클락에서는 선교사훈련이 한 참 진행 중



지난 20일에는 산지족인 아이따족을 방문하여 빵과 쌀을 나누어주고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천주교가 국교라서 그 영향을 받은 대학들에서는 타종교의 활동을 금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학을 방문하여 개인 전도를 하고 대학 정문 앞에서 찬양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사 훈련 3주차 과정 수료

1월 5일에 시작된 선교사 훈련 과정에 16명의 훈련생들이 입소했습니다. 그 가운데 7명이 3주 과정을 신청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중 상담이 있었는데, 상담과정에서 3명이 3주를 더 훈련받기를 원해서 훈련과정을 변경하고 6주 과정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수료식과 선교사 파송예식이 있었습니다. 4명 3주 과정을 수료했고, 1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선교사훈련을 돕기 위해 훈련생들을 이끌고 필리핀에 입국한 김우정 간사(선교국 행정부장)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소천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다음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김우정 간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선교훈련생들과 함께 맞은 구정

오후에 모여서 만두를 빚어 저녁엔 떡 만두국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떡 만두국은 선교현장 실습반중 요리 팀에서 주도적으로 요리를 하여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 윷놀이를 통해 가족애를 나누고 타국 땅에서 명절의 기분을 더했습니다.

27일에는 3명의 선교훈련생들이 훈련에 합류하기 위해 입국하게 됩니다. 대학생들로서 1년을 휴학하고 선교현장으로 달려가고자 함이지요. 1-2년의 짧은 기간 선교현장을 섬기지만 반드시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파송이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제자운동 선교의 강점은 팀 사역입니다. 실패 없는 팀 사역을 통해서 선교현장의 부흥을 이루고, 열악한 캠퍼스사역에 집중하여 그 나라, 그 민족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훈련하여 세웠고, 계속 세워나갈 것입니다.

팀으로 사역하던 이진호선교사 가정 한국으로 귀국

아내인 권상희 선교사는 자녀들과 1월 24일에 출국하였고, 이진호 선교사는 선교훈련 팀의 훈련이 끝난 다음 2월 18일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3년의 시간을 필리핀에 헌신하였습니다. 함께 클락선교개발기구를 세우고 섬겨왔는데, 대표인 저로서는 좋은 팀을 보내게 되어 안타까울 뿐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 아이따족 아이들과 함께

클락선교개발기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1. 팀으로 사역하는 일란과 케니 간사의 성령 충만함과 캠퍼스 사역의 부흥을 위해.
2. 한국으로 떠난 권상희 선교사와 자녀들의 한국에서의 안정과 새로운 적응을 위해.
3. 1년 동안 단기선교사로 최선의 헌신을 다한 장신애 선교사의 학교 복학과 미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도록.
4. 시작된 유학생모임이 활성화되고 지도하는 김진숙 간사의 헌신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5. 윤종대, 정연희 선교사의 언어의 진보와(영어, 따갈록어) 성령충만, 믿음과 지혜로 성장해 가는 자녀들(수지, 의인, 의성)이 되도록.

2009년 1월 26일
세해에 윤종대, 정연희, 수지, 의인, 의성 드립니다.

윤종대 선교사 약력

- 춘천고등학교, 강원대 토목공학과 졸업
-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졸업
- 예장 북강원노회 횡성중앙장로교회 전도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 서울노회 목사안수
- U국 선교사 (1994~2006)
- 현, 필리핀 클락 JDM MISSION 대표









땅끝까지 전하라!

춘천 바나바교회는 지난 2008년 3월, 춘천 효자교회(담임목사 김종호)의 적극적 지원과 감리교 강원지방회, 베드로선교센터, 벧엘교회, 강원대와 한림대 교수협의회, CCF 등 여타 단체의 후원으로 춘천 관내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섬기기 위한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설립초기부터 "복의 근원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춘천 바나바교회(유병준 전도사)편입니다



유병준 전도사

바나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병준 전도사는 강원도 태백이 고향이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중고등부 시절 수련회에서 성령체험을 한 후 주님의 강한 부르심을 느끼게 된다. 그 후 강원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춘천 효자교회를 통해 신앙훈련을 받아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배웠으며, ROTC 장교로 임관, 제대 후 중앙교육 연구원과 강원대 평생교육원에서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이무렵 유 전도사는 주님께 대한 더 깊은 헌신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김종호 목사의 적극적 권유와 지인들의 격려가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고 유 전도사는 회고한다.

바나바교회의 시작

바나바교회의 출범은 작년 3월이지만 그 작은 시작은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대 어학교육원 강사로 입국한 중국인 서단 선생이 효자교회에 등록하면서부터 주님은 외국인 사역을 향한 선교의 마당을 활짝 열어주셨다. 효자교회와 담임자인 김종호 목사의 환대로 격려를 받은 서단 선생은 이후로 많은 중국유학생들을 교회로 이끈다. 이미 춘천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유명한 효자교회 교우들은 유학생들의 집 문제와 의료 문제, 생활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러한 선한 일의 결실이었을까. 교회 청년부의 부흥과 함께 중국 유학생들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해외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듯 유병준 전도사와 차선희 사모를 바나바교회 전임사역자로 파송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아름다운 사역

바나바교회는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바나바 유학생선교센터, 바나바 공동체 등이 그것이다. 바나바교회는 현재 센터 등록회원이 100여 명에 이른다. 초기에는 이탈리아, 몽골출신의 유학생도 있었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중국인 유학생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한국어교실, 소그룹 성경공부, 예배에 참여한다. 물론 이들의 최우선적 필요는 능숙한 한국어의 사용이다. 교회는 이를 돕기 위해 오전에 강원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언어훈련을 받고 돌아온 청년들을 오후에 모아 멘토링을 겸한 예습과 복습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초기 1개의 반으로 운영되던 한국어교실은 현재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뉘어 3명의 교사가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바나바 선교센터는 영적, 정서적 돌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지난 8월에는 '좋은 친구' 란 주제로 '제1회 강원지역 외국인유학생 캠프'를 개최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석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추석음식 만들기, 남이섬나들이, 영화관람, 공동체 놀이 등을 진행하였고, 또한 춘천박물관이 주최하는 '한가위 맞이' 행사에 참가해 투호, 윷놀이, 팽이 돌리기 등 민속놀이와 사물놀이 체험 시간을 함께 가지기도 하였다.

더 큰 비전을 향해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0여명에 이른다. 한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은 질 높은 잠재적 선교 재원이다. 이들 유학생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하며,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 자국으로 돌아간다면 자민족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선교사들이 될 것이다.

현재 해외 선교사 파송 투자비용을 생각해 볼 때 국내에 찾아온 질 높은 현지 예비 선교자원들을 선교사로 양성, 파송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 사역이다. 선교학적으로도 중국 가정 교회의 BTJ(백 투 예루살렘)운동과 관련, 강원도 유학생의 90% 이상이 중국 청년임을 생각할 때 무슬림 지역과 맞닿아 있는 10/40창 지역의 효과적인 선교가 기대되는 것이다.

유 전도사는 지난 1년이 외국인 학생들과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깊은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말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의 선한 뜻이 곡해될 수 있는 소지는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여타의 도시들에서 발생한 현상이지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잘못하면 선부른 종교적 접근(?)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바나바교회는 비록 설립 1년 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 어느 한국 개척교회보다도 예배와 전도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이다. 매주 주일 예배, 성경공부와 함께 화요일과 금요일에 심방과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주 토요일 새벽 1시,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중보 기도모임이 열리기도 한다. 앞으로 한림대를 비롯하여 강릉, 원주 등 강원도 전역에 유학생 사역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도한다는 유 전도사는 차선희 사모 슬하에 찬아, 찬혁을 두고 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역이 더욱 크게 열매 맺기를 기도해 본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 영혼의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자!

요한복음 6:54-56



탁종수 목사
(단비교회)

이 시대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 안에 온전히 자신을 거하게 하는 신앙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 8:23에서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네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와의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의 구별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본문 요 6:56에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 6:53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말의 Ihsou", !Amh:n ajmh:n levgw 이에우스 아멘 아멘 레고"말의 !Amh:n ajmh:n 은 불변의 강조를 나타내는 말로서, 최상급의 표현을 하여, 정말로 정말로 말하는데' 라는 뜻입니다. 즉, 정말로 정말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믿는 모습은 있는 것 같으나, 참으로 믿는 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님을 통째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것을 먹지 않는 편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십자가의 의무를 동시에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믿는 자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씀만 선택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주님의 모습은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심히 어렵다(요 6:60) 그 말씀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된다(요 6:61)"라고 불평하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요 6:66)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온전히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신앙을 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고난까지도 받아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음식이 몸속에 들어와 분해되어 몸의 각 부분에 흡수되듯이 예수님을 먹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참된 영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와 함께 동행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우리의 몸속에서 하나 되듯이 아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입니다. 갈 2:20절을 보면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것, 즉 나 자신과 그리스도가 신비스럽게 하나가 되어 내의로 표현 되는 나의 고집과 자기주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뜻에 의하여 내가 다스려지는 것이야 말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의 비밀까지도 함께 누리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 사색의 창

변화는 내가 먼저



심인섭 장로
(춘천와이신협 이사장)

2008년 우리 신협 경영방침을 '새로운 도전, 즐거운 변화'로 정하고 한해를 보냈다. 과거에는 변화의 속도가 거의 없거나 느렸다. 그래서 조직과 사람은 안전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과거에 의해 미래를 잘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것을 다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변화는 필수적이다. Alvin Toffler는 「제3물결」에서 1만 년 전 농업의 발명을 '제1물결', 산업혁명을 '제2물결'로 규정하였다. Benjamin Franklin은 '죽음과 세금을 빼놓고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변화"이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급과 수요의 관계이다. 이제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가치의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변화란 국제화 시대의 변화와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경쟁력과 높은 수익성을 겸비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보더라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진 은행이 사라지고 대신 신흥은행들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래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불확실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래의 변화는 과거의 변화에 비해 더 불연속적이다. 경영자들이 가장 두렵고 싫어하는 언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왜 문제가 되는가?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규칙이 더 이상 미래에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과 지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때에는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에 그리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경험과 통계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 되어 잘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선이 어디로 길지 모르는 자유방임형 곡선이 되어버렸다.

이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점은 스스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들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도 과거와 똑같이 행동한다. 이것은 변화의 첫 걸음이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잊는 행위이다. 이제 스스로 한 번 질문해 보자.

- **나는 그동안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 **무엇이 변화하였는가? 변한 효과가 있는가?**
- **안으로 변화하였는가? 아니면 밖으로 변화하였는가?**
- **작년과 비교하여 무엇이 변했는가?**

그런데 스스로의 변화는 외부변화가 아니고 내부의 변화인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부의 변화인 것이다. 위선이 아닌 내부의 변화가 아니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하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특히 경영자는 먼저 자신이 변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주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의 주체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5-1260-1 F.033)257-1260









엘스겔의 마른 뼈와같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신흥조경개발 최윤택 본부장(춘천중앙감리교회 집사) 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신다(호6:1). 또한 새롭게 하신다. 이전의 과거를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흥조경개발 본부장 최윤택 집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최윤택 집사

월출산이 가까이에 보이는 영암에서 7남매 5남중 넷째로 태어난 최윤택 집사는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시골마을에 파송된 신학생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동네 마을회관 교회에서의 어린 시절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은 것은 그때 받은 사랑과 추억 때문이라고 회고한다. 지금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생활은 너무 고달프다. 이렇게 힘들 때 생각나는 교회학교 선생님, 전도사님이 교회마다 계셔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언젠가는 찾아올 고향과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신념이 배를 저어간다" 하나님 없는 신념은 잘못된 선택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어린 시절과는 달리 가정에서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픔이었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의 술과 놀음 등 가정에서 늘 폭력과 가난에 시달렸다. 유독 5형제 중 넷째만 차별대우하는 아버지를 피해 만원 한 장 달랑 들고 인천으로 도망하다시피 고향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굳은 결심과 목표를 세웠다. 아버지가 보여준 무능력, 폭력, 술, 놀음 등의 모습을 버리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리라! 이때 그의 마음에 와 닿은 좌우명이 "신념이 배를 저어간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신념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

집을 떠나 타향살이 중에도 20살~21살, 젊은 청년 최윤택 집사는 새벽기도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27세에는 총각 집사 직분도 받았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세상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성공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일하면서 한 달에 1,800원씩 받는 월급을 모아 24세 때 사업을 시작했다. 광명시근처 지금의 KTX역사에서 "관엽 도매업"을 했다. 눈물 젖은 밥도 당시 많이 먹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차로 운송업을 하면서 몸은 무너질 대로 망가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에 실패하면서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를 만나

조금 늦은 35세의 나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최 집사에게 결혼이란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산이었다.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에까지 이른다. 그때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된다. 당시 사랑의교회 장애인사역에서 사랑부를 맡아 봉사하던 믿음의 귀한 아내였다. 최 집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자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들어주는 자상한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고백한다.

결혼 후 세일즈 영업으로 돈도 많이 벌고 부인과 함께 사랑의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신앙은 약해져서 하나님



보다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성공에 대한 신념이 우선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인천과 부천에서 형제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 돈이 많이 벌렸고 직원들도 꽤 늘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불행은 이미 가까이에 와 있었다. 형제간의 분쟁과 다툼, 사기 등 회사의 경영난, 이로 인한 압박감은 5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까지 들게 했다. 그러나 그에겐 어린 자식과 아내가 있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회사는 빚만 늘어가던 즈음에 이제는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갈멜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죽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던 중 아내의 문자를 받게 된다. "나는 괜찮아 힘내! 어린자식들이 있잖아" 울먹이는 아내의 글을 읽으며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가까운 지인의 도움으로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그러나 공허와, 상실감, 수치, 좌절, 분노, 원망, 섭섭 등으로 가득찼다.

제2의 인생, "춘천 생활과 아버지학교"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했다. 그런데 신경증 약 후유증으로 밤에는 잠을 잘 수도 없고 늘 멍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이때는 기억하기조차 싫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때는 가까이에 와 있었다. 우연히 들른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춘천4기 아버지학교를 권하며 등록을 해놓으셨다. 영문도 모르고 등 떠밀려 아버지학교에 참석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윤택 집사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도 많이 해결되고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중앙감리교회를 찾아 '예배성공 인생승리' 라는 표어를 보고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서 청년시절의 새벽기도에 함께 했던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잠 8:17)",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시편46:5)"** 이 말씀을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첫 시간 눈을 감고 아버지! 하는 순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얼마나 힘들고 아프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단다. 그동안의 삶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고, 통곡하며 몇날 며칠을 회개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배를 저어가는 삶'으로의 전환

최윤택 집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1초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 보겠습니다."**

아버지학교 수료 후 스텝으로 섬기면서 지속적인 섬김과 간증으로 많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제는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었다. 말 그대로 나의 主님이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나의 신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최윤택 집사의 오늘과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인생의 계획하심과 목적, 그리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하는 최윤택 집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의 삶이 기대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10)

[진행. 정재호 / 취재. 유병준 / 사진. 김미경]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우리 곁에 있는 山
종합편II

춘천을 둘러쌓고 있는 산들에서 바라보는 춘천시내의 모습은 그 산의 위치만큼이나 다양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바라본 춘천의 모습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삿갓봉(716m)에서 바라본 춘천시내



◀ 수리봉(656m, 샘밭)에서 본 소양강과 북한강의 합수되는 경관 그 옆에 봉의산이 보인다.



▲ 북배산(867m)에서 바라본 춘천



▲ 삼악산(654m)에서 바라본 춘천



▲ 드름산(357m)에서 바라본 춘천



모든 사진에는 춘천시내의 중심으로 봉의산이 보인다.



▲ 마적산(613m)에서 바라본 합수지점 봉의산이 보인다.



▲ 구봉산(441m)에서 바라본 춘천



▲ 대룡산(899m)에서 바라본 시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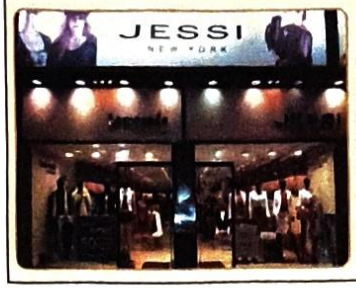
▲ 향로산(329m)에서 바라본 춘천. 향로산은 서울 가는 옛길을 두고 드름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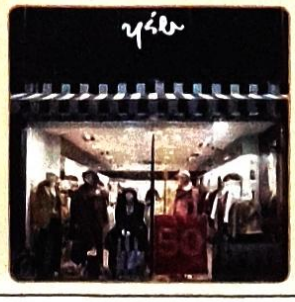
▲ 안마산(303m)에서 바라본 시내

여기 소개된 산들은 춘천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거기서 춘천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

[편집위원 고 재 만]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본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이석윤 / 주님의 말씀/ 서양화

<작품설명>
주님의 은혜속에 39년 동안 수채화를 그려왔습니다. 이번 작품은 호롱, 성경, 석류 등을 넣어 빛과 주님 말씀과 열매를 상징해 그렸습니다. 붓글씨를 수채화 작품 속에 넣어 독창성있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석윤: 강원미술대전 동아미술대전 초대작가, 석사교회 집사]

나는 감사 덩어리

어느날 나는
세상 끝 벼랑
절망의 꼭지점 위에서
한순간 마음을 비웠다.

마음으로 몸으로
감사하는 것들을
자판위에 새겨 놓고
현실을 뒤 돌아보았다.

온통 감사의 대상 뿐
칡넝쿨 마냥
네 삶을 뒤덮은
감사덩어리들

감사 감사 감사
나는 감사 덩어리
절망과 좌절의 삶이 아닌
희망과 꿈의 실체임을

감사 감사 감사
나는 감사덩어리이다.

- 시. 김 장 기(한길교회 권사)

| 좌충우들 건강이야기 14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



정 형 만 원장
(참사랑내과)

커피 애호가들은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접할 때마다 편안하지 않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좀 줄여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커피의 긍정적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가 부정적 연구결과보다 더 많다. 현재까지의 학문적 연구결과는 안심하고 건강까지 생각하고 마셔도 된다.

1. 우리 몸에 골고루 좋은 커피에 관한 연구

CNN은 유나이티드 킹덤대학의 연구결과를 인용, 식단에 넣어야 할 음식 세 번째로 커피를 소개한 바 있다. 노년의 기억력이나 사고력의 감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노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커피를 마시는 것이 권장된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커피를 마시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심혈관질환의 초기 증상인 염증과 혈관내피의 기능장애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커피와 건강에 관한 연구는 과거에도 많았다. 2000년 메이요클리닉 연구팀은 커피가 파킨슨병 발병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2004년 하버드대 연구팀은 당뇨병의 위험을 줄여주는 음료로 커피를 뽑았다. 2005년에는 국가암센터가 간암방지에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미국 암연구센터의 카렌콜린스는 커피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믿을만한 근거는 없으며 커피에는 산화(노화)방지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캐롤린스카연구소는 커피를 마시면 뇌졸중을 20%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화재를 모았다.

2. 커피 속의 카페인 역기능보다 순기능 높아

흔히들 커피 속에 함유된 카페인 때문에 커피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하루 커피 3-4잔(약 240-320mg)이하의 카페인 섭취는 건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적정량의 카페인 섭취는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신체의 반응속도를 높여 운동선수의 경기력과 민첩성을 향상시킨다. 미국 국립과학원의학연구소에 따르면 600mg 이하의 카페인은 시각, 청각 등 신체 각 기관의 반응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며 일시적으로 지구력을 향상시켰다고 한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 사람마다 카페인 분해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와서 고생하지만, 어떤 사람은 10잔 이상 마셔도 자기 전에 바로 마셔도 아무렇지 않다. 카페인에 민감한 성인이라면 하루 300mg 이상의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서는 안된다. 과다섭취(어린이 100mg, 청소년 200mg, 어른 300mg 이상)하면 카페인 중독증(Caffenism)이 생길 수 있다.

3. 웰빙 바람타고 발전하는 커피

커피가 몸에 좋지 않고 다이어트의 적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커피 때문이 아니라 커피 속에 첨가된 당분, 시럽, 휘핑크림, 프림 등 때문이다. 블랙원두커피의 경우 열량이 5kcal 미만이다. 칼로리가 거의 없다. 하지만 커피믹스의 열량은 50~80kcal이다. 블랙원두 커피의 10배가 넘는다. 카페라떼의 경우 200kcal를 넘는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깔끔하게 원두커피를 마시는 것이 현명하다. 웰빙 트렌드는 커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원두커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급커피의 대중화 현상은 눈으로도 확인된다. 생두(生豆커피콩)를 직접 로스팅(roasting 볶는 과정)해 원두로 만들고, 이 원두로 내린 신선한 커피를 파는 로스터리 커피숍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스턴트커피와 캔커피도 달라지고 있다. 업체들이 앞 다투어 비싼 원료를 사용하는 프리미엄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4. 이런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불면증 불안장애, 심장병(부정맥), 과민성 방광 등이 있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카페인은 위산분비를 촉진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소화기관을 자극해 위염이나 십이지장궤양 환자의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 임산부가 카페인을 하루 300mg 이상 섭취하면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 저체중아 출산위험이 높아지고, 태아가 빈혈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칼슘이 부족하거나 뼈가 약한 사람도 카페인을 삼가는 것이 좋다.

성경을 찾아보라 (신앙상담1)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죄인이기에 지옥에 가지만 원죄 때문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법에서도 어떤 범죄에 해당해도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책임이 없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육체 안에 죄가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모든 사람의 육체 안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범죄자는 자기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율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육체 안에 죄가 거주한 채로 태어났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마5:29-30)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 자신이 지은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또 제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간데없었고; 그들이 있을 자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보았더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놓았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으며: 그들이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못하면 불호수 속으로 던져졌습니다."(계20:11-15)

분명하게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악한 행위 때문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계21:8)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군주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요16:8-11)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지옥에 가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자신의 악한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해결책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판단해 보십시오(고전10:15; 11:13).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마18:12; 21:28)

[편집부]

예 항

계속 하십시오

인생의 건축을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둥을 하나 쌓고 그 다음날에 허물고 다시 벽돌을 쌓고 그 다음날에 허물고. 그렇게 해서는 몇 년을 건축해도 인생의 온전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그것을 소멸하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의 생기를 얻고, 다시 삶속에서 주님을 잊고. 그래서는 10년을 믿어도 주님이 거하실 온전한 성전을 우리 안에 건축하지 못합니다.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꾸준하게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정원 목사]

성 시 만 평

이 관 형 · jysince93@hanmail.net



2009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고재만 권기찬 김미경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유병준 정재호 조영춘 조나단 최상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하늘지음 기(氣)밥

기(氣)밥, 곤드레밥, 뭉텅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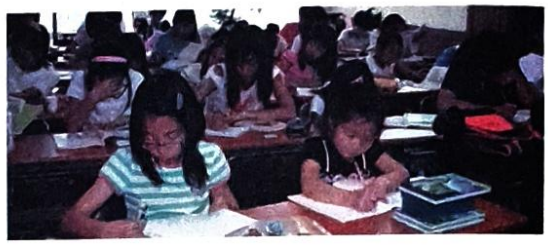
기(氣)를 내뿜는 순수국산 9가지 곡물로 지은 우리 조상의 전통 보양밥 전문점
기(氣)밥이란 옛부터 중병을 앓고 난 사람 즉, 극도로 쇠약해 진 사람에게
원기회복을 시키기 위하여 먹였던 밥으로서
우리가 늘 먹는 곡식중에서 기(氣)를 내뿜는 곡식만을 골라
배합율을 우리 몸에 맞게하여
항시 기(氣)를 충족시키는 밥으로
신림농협에서 지정한 순수 국산곡물 기(氣)밥 전문점입니다.

단체예약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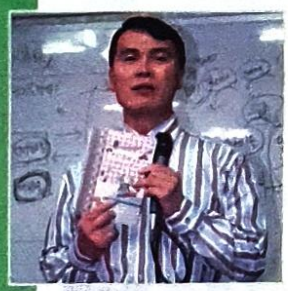
대표 김영관 장로 ☎(033) 254-4702, 011-370-4702 / 춘천시 후평3동 한신아파트 앞 사거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점핑독서문화원

■ 교회 교육의 대안, 점핑독서문화원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문제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가운데 '점핑독서문화원'이 탄생됐다. 유일한 해결 방안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준비된 기독인재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국 교회에 세상의 빛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다니엘과 모세와 같은 준비된 기독 인재를 찾으신다. 준비된 기독 인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숙한 인격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런 준비된 기독 인재는 기도만 한다고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올바르고 탁월한 교육을 통해서 양성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점핑독서문화원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할 뿐 아니라 교육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일반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 있는 깊이와 상세함, 비전문가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함과 명료함을 겸비하기 위해 책상과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여 왔다. 지금은 현장에서 목회자와 교육담당자, 부모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삶의 원칙을 설계해 주며, 인생계획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학습의 방법을 코칭하면서, 올바르고 효과적인 자녀교육과 교회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기관과 사역 소개

기관에는 목회자와 교육담당자, 부모교육을 위한 독서대학, 주일학교 교육과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인 독서교실, 방학 중 집중학습을 통해 변화의 극대화를 체험하는 캠프스쿨, 훌륭한 기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독서스쿨, 비전스쿨, 슈퍼스쿨, 리더스쿨, 학습 컨텐츠를 생산하는 점핑연구소가 있다. 점핑독서문화원은 위와 같은 사역들을 통해 세계화, 국제화에 걸 맞는 우수한 기독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훌륭한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인격, 비전, 실력을 한 사람 안에 겸비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감성, 건강한 지성, 건강한 사회성, 건강한 영성을 골고루 개발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건강한 영성을 기초로 놓고, 그 위에 건강한 감성과 지성과 사회성을 교육하고 있다. 핵심 학습은 영성 학습, 사고 학습, 생활 학습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점핑독서문화원은 다니엘과 모세와 같은 소수의 기독 인재 양성이라는 질적 차별성을 치열하게 고집해 왔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현장에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면 교육센터를 만들어 검증된 교육 시스템을 자신 있게 한국 교회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준 높은 교육 제품을 구입하기에 경제적 부담을 가졌던 많은 개인과 소형 교회도 교육의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담 없이 가정이나 교회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탁월한 교육 제품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여 교회 교육의 대중적인 변화를 통해 기독인재의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또한 기독대안학교를 설립하여 더욱 차별화되고 정교한 교육시스템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교회 교육의 모델과 도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즉, 교육센터를 통해 기독 인재의 대중화를 추구하면서도 기독대안학교를 통해 소수의 기독인재 모델과 정교한 교육과정의 끊임없는 창조를 감당해 나가려고 한다. 점핑독서문화원의 비전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 행사 계획

2009년 2월 12일(목) 저녁 7시30분 춘천YMCA 2층 대강당에서 목회자와 교육담당자 및 부모들을 위한 무료독서공개강좌가 〈독서교육을 통한 기독인 재양성〉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란다.

[문의 : 011-367-3454, 070-7559-5160, 011-9804-1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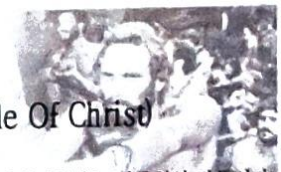
자료제공. 점핑독서문화원 〈카페: http://cafe.daum.net/jumping〉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풍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20>



벤 허 (Ben-Hur : A Tale Of Christ)



〈1925년〉



〈1959년〉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모든 영화팬들을 통틀어 영원히 기억에 남는 영화 중 하나가 이 유명한 〈벤허〉이다. 벤허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윌리엄 와일러의 1959년 작으로 알고 있으며 명배우 찰톤 헤스톤을 앞세워 헐리우드 영화사상 가장 많은 오스카상 11개 부문을 휩쓴 작품이다. 1998년 제임스 카메룬의 〈타이타닉〉도 같은 기록을 세웠으나 연기부문을 제외한 스텝에 그쳐 진정한 연기와 작품성으로서는 아직까지 벤허를 앞지른 예가 없다. 벤허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찰톤 헤스톤은 세실.B.드밀의〈십계〉에서 모세 역도 맡는 등 순종적이며 휴머니즘적 캐릭터로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재작년에 타계했다.

그러나 이 벤허가 이미 1925년 무성 흑백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프레드 니블로라는 감독이 만든 〈벤허〉는 사실상 원작에 더 충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 역시 자료로만 알고 있다가 며칠 전 케이블 P방송에서 벤허가 전차경주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중간부분부터 운 좋게 볼 수 있었다. 이야기 전개가 윌리엄 와일러보다 조금 더 호소력이 짙었으며 특히 그 유명한 전차경주 장면은 과연 1920년대의 기술이라고는 믿기 힘든 실감나는 박진감을 보여주었다. 1915년부터 시작하여 10년에 걸친 제작기간에 12만 5천명의 캐스트와 엑스트라가 동원되었다는 기록적인 작품이다. CG와 특수촬영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무대세트도 웅장하고 큰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으며 의상의 화려함은 흑백의 화면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류 윌리스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벤허〉는 우정과 배신 그리고 신앙과 치유라는 두 얼개로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전차경주라는 커다란 스케일을 중심으로 감동 있게 보여주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는바 이미 1907년에도 처음 제작되었으나 자료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부유한 유대인의 신분에서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로 전락한 벤허가 전함의 노를 젓는 고역을 거쳐 우연히 로마 장군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해전의 장면도 놓칠 수 없는 대목이며 이는 이미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신앙인으로서의 역정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유다 벤허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직후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은 이야기는 아직도 뭉클한 감동으로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이 살아 있을 것이다.





이미 수차례 재 상영되기도 한 윌리엄 와일러의 〈벤허〉는 언제 보아도 늘 새로운 감동으로 영화팬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위대한 영화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다.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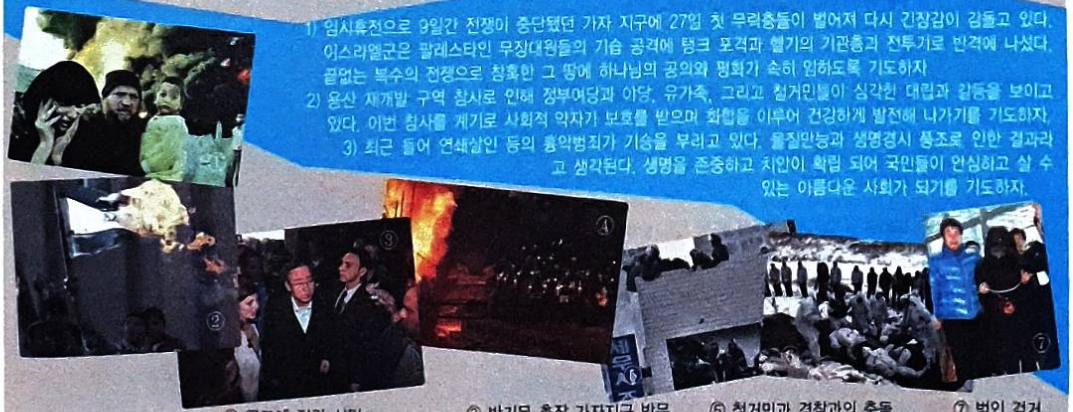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세계 분쟁지역의 평화 | 용산 참사의 해결 | 치안질서확립과 생명존중 회복

1) 임시휴전으로 9일간 전쟁이 중단됐던 가자 지구에 27일 첫 무력충돌이 벌어져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의 기습 공격에 탱크 포격과 헬기의 기관총과 전투기로 반격에 나섰다. 끝없는 복수의 전쟁으로 참혹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자

2) 용산 재개발 구역 참사로 인해 정부여당과 야당, 유가족, 그리고 철거민들이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받으며 화합을 이루어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도하자.

3) 최근 들어 연쇄살인 등의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물질만능과 생명경시 풍조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생명을 존중하고 치안이 확립 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자.



① 공포에 질린 시민
② 분노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③ 반기문 총장 가자지구 방문
④ 용산 철거민 농성
⑤ 철거민과 경찰과의 충돌
⑥ 시신발굴 현장
⑦ 범인 검거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6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1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거성교회
광영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사암교회	새춘천교회
세인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양의문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온누리교회	주영광교회
주향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와이신협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평화일로암교회
한빛교회	국민일보 춘천지사
기독무용선교회	쏘인테리어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천일현수막	행복제과장기요양기관

강선희	강옥자	강진욱	강태랑
고순덕	김관수	김기태	김태숙
김리현	김영숙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민섭	김복신	김선국
김성희	김영관	김영영	김영숙
김영순	김영일	김요섭	김은주
김재홍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중찬	김진상	김현미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류재웅
마호숙	민병순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인관	박정애	박제자
박중근	박필상	박형숙	배진철
변춘자	석지찬	송남의	신성균
심경하	안미애	안현주	양금환
오순자	오홍수	원희정	유갑순
유근창	유병춘	유성현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윤여자	윤홍묵
이계운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명순	이무식	이범일	이상돈
이상인	이수창	이순자	이영진
이용규	이원근	이윤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이혜안	임재철	임창수
장기남	장기영	장덕례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주현
장창순	전영목	정규시	정미경
정은희	정재근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명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지	지경화
차경자	최계희	최명숙	최상호
최윤용	최종덕	최춘영	최혜영
한성이	한희현	함종현	허미정
허순영	허연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홍택기	황병찬	황은주
황정섭			

명가 만두



※만두 名人이 빚은 20년 전통의 즉석 손만두
※테이크아웃수제 만두 춘천점
SINCE 1985
춘천 중앙로 농협 앞
☎ 242-8680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평생,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에 소망하는 춘천성시화!

한 균 목사
평화감리교회/춘천기독교연합회증경회장

'호반의 도시 춘천', '성시화의 원조 도시 춘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춘천',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춘천', 춘천을 설명한 수식어가 무척 많다. 사실 춘천은 아름다운 도시이다. 산과 도시를 감아도는 강물을 따라 토속적 시골 정취가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춘천은 성시화의 수원지답게 영혼이 순결한 도시다.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그리며 내 고장 춘천의 2009년을 다음과 같이 소망해 본다.

우선 성시화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순결'을 소망한다.

이것은 개인과 교회 모두가 회복해야 할 제일의 과제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영적 순결이었다. 우상과 탐욕, 거짓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왕조에 날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들려오는 듯 두려운 시대이다. 하나님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교인들과 세상적 가치관에 오염되어 상업화 되어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순결한 영성을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게 된다.

다음으로 '교회연합운동'을 소망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목회자와 교인 모두 내 교회 우선이란 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인과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안에 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모든 교인과 모든 교회는 무조건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지위의 높고 낮음을 다투지 말고 모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춘천에 임하시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운동'이다.

성시화운동이 추상적이 아닌 실제가 되려면 사랑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복음화의 힘이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랑 없는 곳에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새해 2009년이 밝았다. 금년에는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영적순결운동, 교회연합운동, 그리고 사랑운동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한다.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TCE 교사대학 1단계 춘천/홍천
✻ 춘천: 2월 16일(월) ~ 21일(토) 9:30~4:00
장소: 본회 지정 강의장 (20명 선착순)
✻ 홍천: 2월 23일(월) ~ 28일(토) 9:30~4:00
장소: 홍천희망장로교회 (20명 선착순)
등록금: 10만원(시범교재, 점심, 핸드북제공)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스컴
1) 2009, 고3 영성훈련 단기선교
일시: 2월 1일(일) ~ 9일(토) 장소: 중국 쿤밍
2) 기독동아리임원단 연합수련회
대상: 춘천시 중고교 기독동아리 임원단
일시: 2월 26일(목) ~ 27일(금) 오후6:30~9:30 장소: 미정
문의: 예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elove
박진용 간사 010-8901-7004, 033)244-5400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순장수련회
일시: 2월 16일(월) ~ 20일(금) 장소: CCC아카데미하우스
2) 간사IBS
일시: 2월 2일(월) ~ 6일(금) 장소: CCC본부(서울 부암동)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봄내병원)
대상: 중보기도를 자원하는 그리스도인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의료인 수련회
일시: 2월 9일 ~ 13일 장소: 가평 대동교회 수양관
2) 지방사역협의회
일시: 2월 15일 ~ 17일 장소: IVF회관
3) 임원 및 캠퍼스 리더 캠프
일시: 2월 17일 ~ 28일 장소: IVF회관
4) 장기헌신 간사 수련회
일시: 2월 22일 ~ 25일 장소: 대구 성주
문의: 252-5200

◆ JDM
1) 태국선교훈련
일시: 1월 30일 ~ 2월 12일 장소: 태국 방콕
2) 한국간사수련회
일시: 2월 2일(월) ~ 7일(토) 장소: JDM 훈련센터
3) 2009년 전반기 개강 LTC
일시: 2월 16일(월) ~ 18일(수) 장소: JDM 춘천지구 회관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번역선교회
1) 비전기도회
일시: 2월 2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심광교회
2) 리더수련회
일시: 2월 11일(수) ~ 13일(금) 장소: 대전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 017-383-2416
[chuncheon@v20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 세계성결개척선교단 토요영성캠프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9:30분~11:00, 오후반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직장인 · 주부 · 청년 · 사역자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우석초교옆)
문의: 263-6022, 017-374-2440

◆ 제이락(춘천인합창앙단) 정기예배
일시: 2월 2일, 16일(월2회) 오후7시
장소: 이루이가는교회(cc볼링장 위) 문의: 010-9368-9856

◆ (재)기독교한국호산나선교회
1) 춘천 대안교육 학생모집 - 대상: 중고교생
"적성을 찾아주고 꿈을 심어주는 미국의 메트스쿨 같은 대안학교를 지향"
2) 자원봉사자 및 전문멘토인 모집
청년봉사자: 스포츠, 동아리, 음악, 영어, 상담 등 청소년을 위해 함께 활동해주실 기독 청년.
문의: 254-3205 / H.P. 011-9737-1919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 ~ 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95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단원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인공폭포 앞 1.5닭갈비 4층
※ 교회 방문 수업 가능
문의: 춘천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 : 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해 등으로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장로)

◆ 인터콥 춘천지부
1)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3째주 제외) 저녁7시
장소: 효자감리교회(효자3동 주민센터앞)
팀장: 262-1040, 장병자 간사(016-797-9234)

◆ 교회 레크리에이션 아카데미
일시: 2월 14, 21, 28일(매주 토, 오후1시~3:30)
장소: 효신선교회 강의실(종합운동장 태백가든옆)
등록: 1차 2월 12일까지(2만원), 단일등록(2만5천원),
단체5명이상 1인당(2만원)
문의: 019-763-8868
접수 후 입금 (농협 1113-02-190120 예금주:김은실)
내용: 교회레크리에이션의 실제, 찬양, 게임송, 아이스브레이크, spot기법, 레크리에이션 치료
강사: 백분기 복사(국제기독교문화연합회 연구소장)
※ 교회, 단체 모임, 레크리에이션 행사기획 도와드립니다.

◆ 춘천장로교연합회 새해 목회비전세미나 및 친교모임
일시: 2009. 2월 5일(목) 오전 11시
장소: 동신 교회 (이병서목사 시무)

www.seeds21.co.kr
MOS
95%의 합격률
씨앗은 100% 합격률에 도전합니다.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사무국 신년예배를 1월 9일(금)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드렸다. 이날 이춘일목사(베드로순복음교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사도행전 3:1~10)란 주제로 성공을 위한 5가지 끈-매끈(둥글둥글하고 매끈한 사람), 따끈(따뜻한 사람), 불끈(정열의 사람), 화끈(결단력 있는 사람), 질끈(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계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폭발적인 성령의 힘으로 바위를 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고, 성시화운동이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였다.

■ 2009년 시무 감사예배



춘천와이신협(이사장:심인섭) · 춘천CBS(본부장:김세환)는 2009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오전11시 신협 예배실에서 연합 시무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춘천CBS운영후원회장 김창수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살전 5:16~18)란 제목의 설교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09년 한해가 되기를 축원하였다.

■ 순복음강원신학교 졸업식



2009학년도 제10회(통합54회) 순복음강원신학교(학장:이춘일목사) 졸업식이 1월 12일 오전 11시 순복음춘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모두 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순복음강원신학교는 기독교 정신과 오순절 성령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과 학문적 이론을 통해 시대적 사명자, 훈련된 영성인, 전인적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복음화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 행복 나눔 동감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최기원)은 1월 22일(목) 오전12시 한식당 혜인정(대표:심재희)의 후원으로 작년에 이어 강원도 내 피학대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행복을 나누는 만찬, 동감 for child"를 열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뜻 깊은 행사였다.

♡ 기독교연합회 2009년 신년교례회





새해를 맞아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장효근목사)는 1월 3일(토) 오전11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2009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춘천지역 교계지도자들과 기관장들, 각 기독교단체장과 선교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등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모든 교회와 단체의 부흥과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는 부회장 지용찬목사의 진행, 기도 이영식장로, 성경봉독 고재만목사, 춘천성시합창단의 특별찬양, 이건실춘천시의장과 이광준시장님을 대신하여 양봉남미래기획팀장이 축사를, 허천국회의원이 격려사를, 김주환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장 장효근목사는 "도우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신년메시지를 전했으며 한 해 동안 수고한 한균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어 2부 순서는 총무 조영춘 목사의 진행으로 각 기관 소개와 애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성시화를 위한 연합 중보기도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성시화를 위한 연합 중보기도모임 활성화를 하고자 준비모임을 1월 23일(금) 오후 12:30분 유스아트홈에서 가졌다. 이 모임에는 에스컴, 에수전도단, 유스아트홈, 춘천청년포럼, 춘천홀리클럽, 통일나눔터가 참여한 가운데 춘천연합중보기도네트워크(CCPN:ChunCheon Prayer Network)의 활성화를 다짐하고, 매월 주제가 있는 정기 기도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특히 춘천영적지도를 활용하여 땅 밟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춘천 성시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단체와 개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문의:256-1260)

♡ 기아대책과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협약식



사회복지법인기아대책과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협약식이 1월 19일(월) 오후6시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있었다. 동부연회 원종국감독, 기아대책본부 최부수목사, 원기배 기아대책춘천지역이사장, 이학규 홀리클럽회장, 이영규 남선교회동부연회연합회장, 이영식 춘천장로연합회장, 탁광희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시설장과 직원 등이 모인 가운데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과 기아대책이 함께 춘천지역 내 치매, 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통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였다.

■ 해병대 홀리클럽 창립예배



춘천지역 해병대 홀리클럽 창립모임이 1월 17일(토) 오후5시 석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 후 규약을 제정과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춘천해병대홀리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에는 회장 전천일장로(순복음춘천교회), 부회장 민빙업장로(안디옥감리교회), 총무 홍현섭장로(남부제일감리교회)가 각각 선출되었다.

■ 크리스천 기타교실 개설



크리스천기타교실이 1월 6일(화)과 8일(목)에 개설되어 통기타 대중시대에 편승하여 크리스천들도 부담 없이 기타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김진규목사(전 CBS방송 본부장)가 추진하고 있는 선교사업의 일환인 기타교실은 A코스는 매주 화요일 오후6시 뉴랜드알로에에서, B코스는 목요일 오후4시 광장감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일반시민들에겐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선교에 큰 몫을 감당할 것으로 본다(문의 010-6654-8280).

■ 고3 영성훈련 수료



에스컴 주최로 열린 제15회 고3 영성훈련 수료식이 1월 23일(금) 오전10시 중앙성결교회에서 있었다. 입시를 마친 청소년들이 진학, 취업 이전에 단기간 집중적인 신앙훈련을 통해 거룩하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훈련의 장인 '고3 영성훈련' 과정에는 12명이 참가하여 1월 2일부터 23일까지 3주 과정을 마쳤고, 1월 29일부터 2주간 중국 쿤명으로 단기선교훈련을 받게 된다.

■ 창조도시시민포럼 워크샵

창조도시시민포럼(상임대표:박의범) 워크샵이 1월 29일(목) 오후6시30분 강원대 경영대학 2호관 2202호에 진행됐다. 이날 "꿈, 그 성취 가능성과 두뇌 작용", "21세기를 준비하는 창조적 두뇌 계발"이란 주제로 춘천교대 박민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2009년 포럼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취재 · 김미경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창립 1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교회표어

살아 일어나라! (겔37:10)

신 앙 목 표

1. 온확한 사랑으로
2. 불꽃같은 헌신으로
3. 반석같은 믿음으로

◦일시 : 2009. 2. 17 (화) 오전 11시

◦장소 : 대성전 (석사동 자동차 검사소 앞)

◦강사 :



조 용 목 목사
기하성 대표종회장



이 준 일 담임목사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베드로순복음교회

☎ 261-3167 / 011-372-0037. 춘천 동내면 거두리 997 (교도소 입구)

춘천은 21C 홀리클럽을 최초로 일으킨 도시!

춘천홀리클럽은 창립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조직현황 : 국내 – 28개 도시. 해외 – 7개국 11개 도시

♠ 춘천에는 : 성시합창단. 기관장기도모임. 여성무궁화기도모임. 해병대홀리클럽. 청년홀리클럽이 조직 됨.

★ 2009년 주요사업

① 기도회(정기,수시)
② 창립13주년 성령부흥대성회
③ 성시합창단공연(정기,수시)
④ 시가지전도
⑤ 청소년찬양대회
⑥ 홀리비전투어
⑦ 십자가대행진
⑧ 직능별 홀리클럽 창립(언론인, 의료인)
⑨ 연합추수감사축제
⑩ 성시캠페인(3전운동, 아나바다저축운동)
⑪ 어린이선교대회
⑫ 체육대회(탁구)

chcm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 성시화를 위한 3천 성시후원자를 찾습니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 제목

- 춘천이 성령충만하고 범죄 없는 거룩한 복된 도시로
- 춘천이 예술과 문화, 교육과 환경의 세계적 명품 도시로
- 교회와 열방을 위한 신실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도시로
- 춘천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행복한 모델 도시로

후원자 참여 안내

- 성시 3천 기도후원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1인 월회비 최소 2,000원을 약정해 주세요.(자동이체)
- 119기도운동에 참여해 주세요.(하루 1번 9분 기도하기)

문 의 : 033) 256-1260~1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홈페이지: www.holycity.or.kr / E-mail: hc1260@hanmail.net]

후원계좌 농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주일을 지킵시다! 10월은 성시화운동이 태동된 달입니다. 10월 첫째주일을 성시주일로 지켜주시고, 성시화운동을 위해 헌금해주세요.♠

춘천성시화운동본부